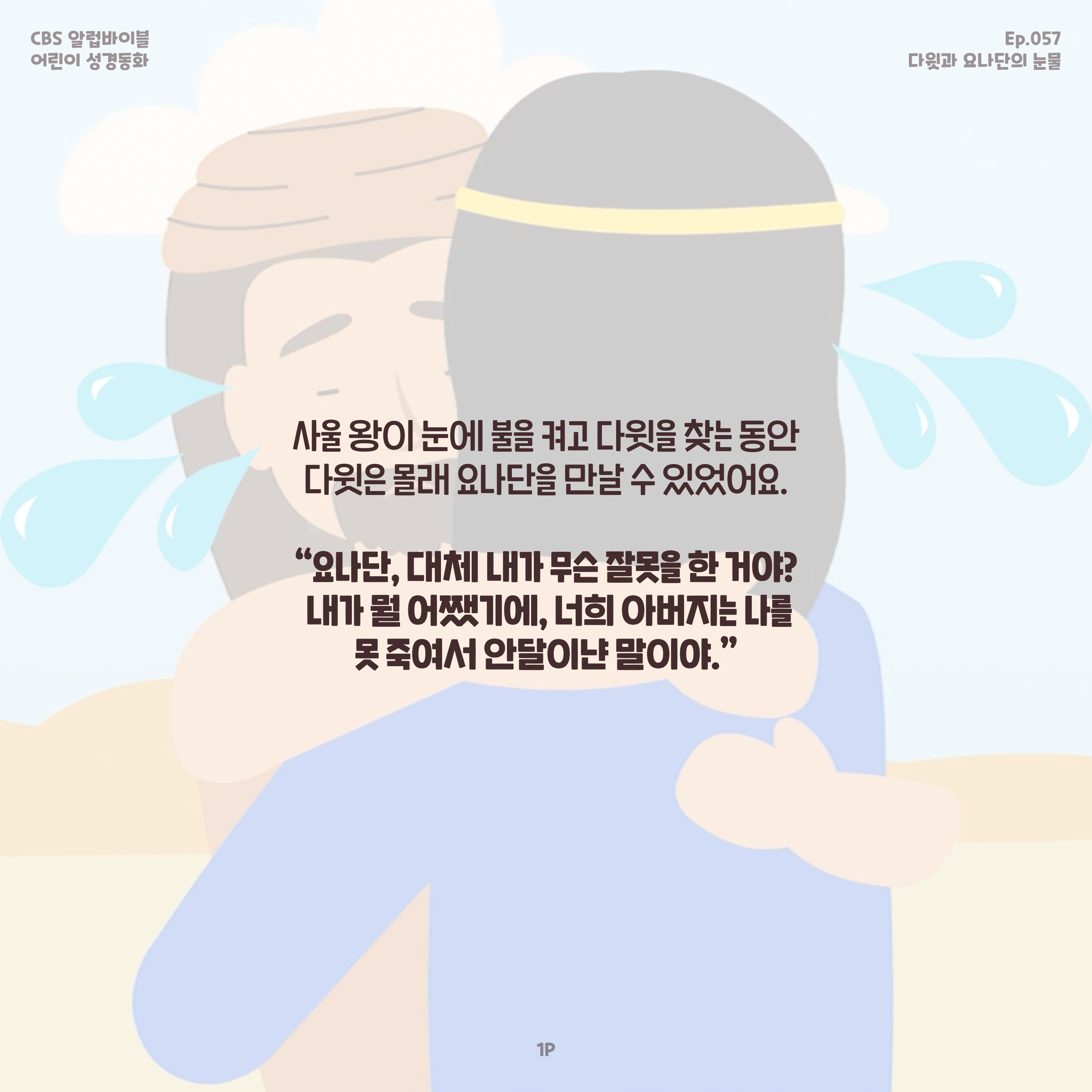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57

다윗과 요나단의 눈물

(사무엘상 20:1~21:15)

An illustration of King Saul and Jonathan. King Saul, on the left, has brown hair and a beard, wearing a brown headband. Jonathan, on the right, has dark hair and wears a yellow headband. Both are shown from the chest up, wearing blue robes, and are crying with large blue tears falling from their eyes.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sky with soft white clouds and a yellow ground at the bottom.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는 동안
다윗은 몰래 요나단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요나단,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내가 뭘 어쨌기에, 너희 아버지는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난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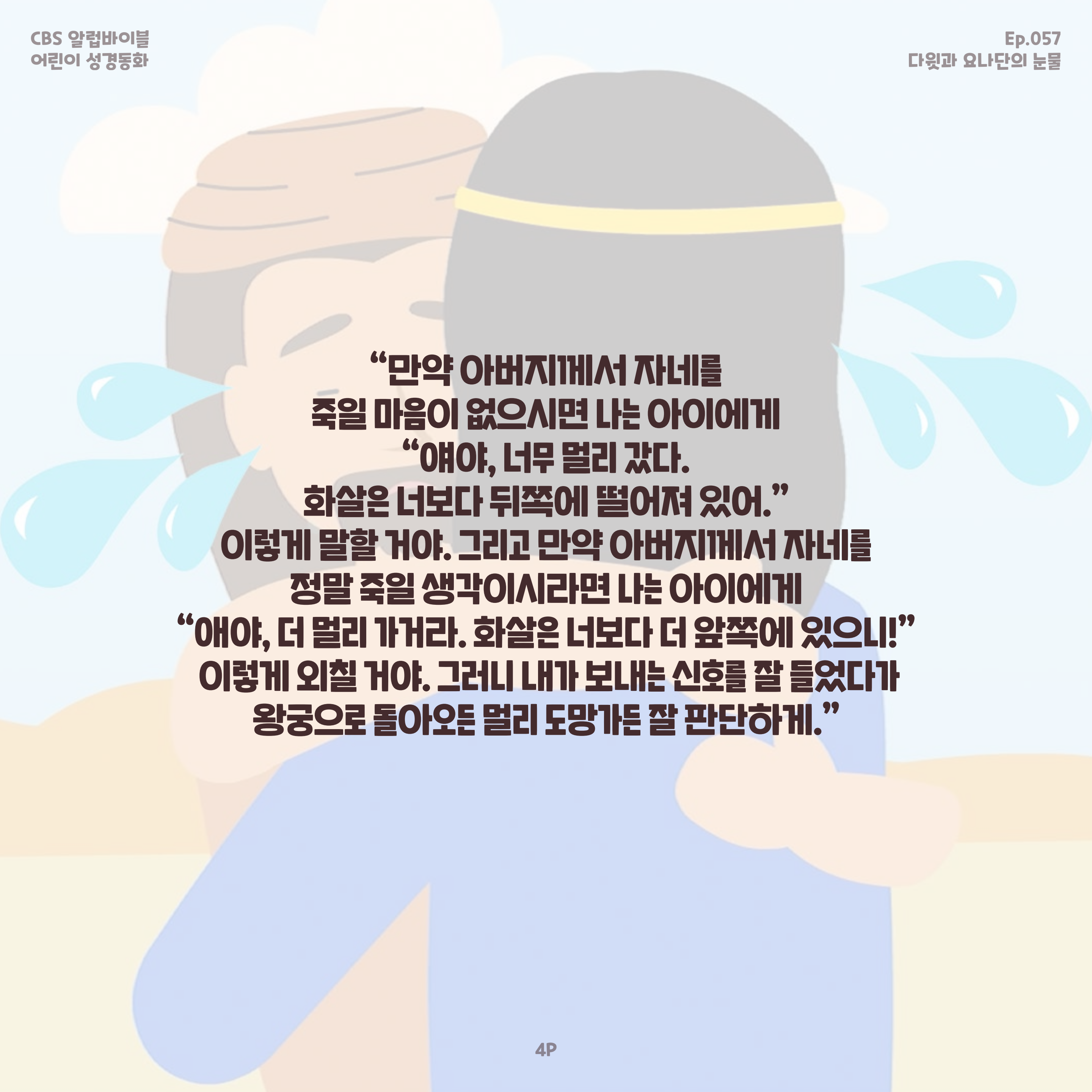
**“죽이다니...! 다윗, 걱정말게.
자네는 절대 죽지 않을 테니 말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일 마음이 있으셨다면
아들인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고.”**

**“아니, 오히려 우리 둘이 친구 사이라서
너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
왕께서는, 분명 나를 죽이고 싶어 하셔.”**

결국 두 사람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마침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왕궁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 잔치에
다윗이 일부러 참석하지 않기로 한 거죠.
사울 왕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 너는 잔치가 열리는 동안
내가 알려주는 큰 바위 뒤에 숨어 있게.
내가 바위 쪽으로 화살을 쏜 다음
한 아이에게 화살을 주워 오게 시킬 거야.”



**“만약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일 마음이 없으시면 나는 아이에게
“애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은 너보다 뒤쪽에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리고 만약 아버지께서 자네를
정말 죽일 생각이시라면 나는 아이에게
“애야, 더 멀리 가거라. 화살은 너보다 더 앞쪽에 있으니!”
이렇게 외칠 거야. 그러니 내가 보내는 신호를 잘 들었다가
왕궁으로 돌아오든 멀리 도망가든 잘 판단하게.”**

두 사람은 이렇게 둘만의 비밀 신호를 정한 뒤
아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잔치의 첫째 날, 모두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다윗의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사울 왕은 신경이 쓰였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 날도 다윗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자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어찌하여 다윗 녀석은 어제
오늘도 코배배기도 안 보이는 게냐?”

“그, 그제... 다윗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
오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이 과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 이 바보 같은 녀석
네가 또 다윗을 감싸고 도는구나.
네 녀석은 이 아비보다도
다윗 녀석이 더 소중한단 말이나?”**

**“아버지, 대체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 친구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끄럽다 네 이놈!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어!”**

사울은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그만
아들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지고 말았어요!
그제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요나단은 화도 나고, 다윗을 생각하면 슬픈 마음도 생겨서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부터 한 아이를 데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 근처로 향했죠.
요나단은 바위를 향해 화살을 쏘았어요.

그리고 함께 간 아이에게 화살을
주워 오라고 한 뒤
뒤에서 이렇게 외쳤죠.

“화살이 더 앞쪽에 있지 않느냐?
더 멀리 가거라.”

그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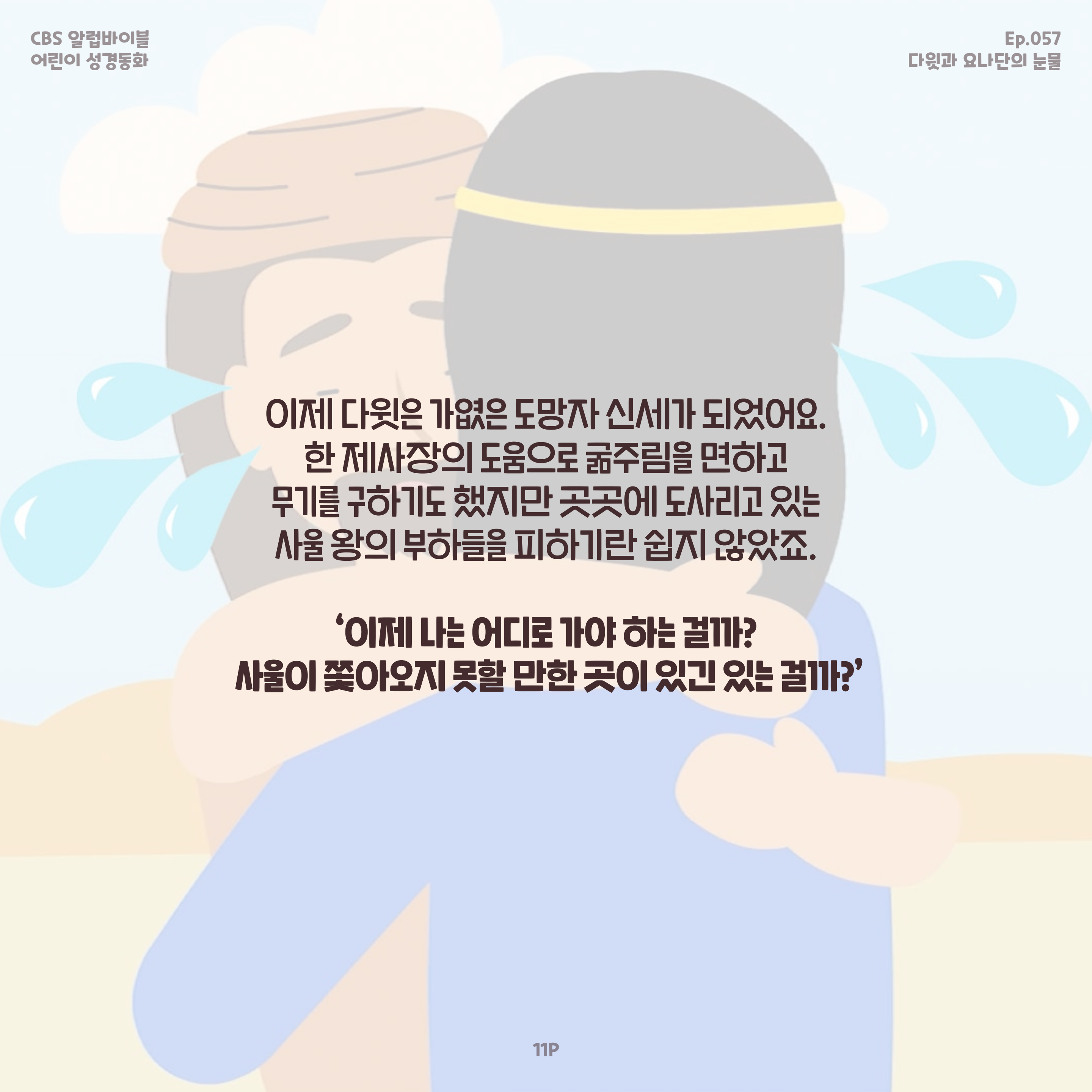
아이가 떠나자, 다윗이 바위 뒤편에서 나왔어요.
다윗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
요나단의 우정에 감격해서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가
뜨거운 포옹을 나눴어요.

“요나단, 정말 고마워...”

“어서 떠나게나 다윗. 그리고 꼭 기억하게.
우리가 몸은 떨어져도
서로 약속한 평생의 우정은 영원할 거란 걸 말아야.”

그렇게 두 친구는 헤어지기 전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다윗은 가엾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한 제사장의 도움으로 굶주림을 면하고
무기를 구하기도 했지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울 왕의 부하들을 피하기란 쉽지 않았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곳이 있긴 있는 걸까?’**

당장 목숨이 위태로웠던 다윗은 궁리 끝에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쳤어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땅이라면
사울 왕이 따라 올 리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수많은 패배를 안긴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드 지역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도 전해졌어요.

**“뭐라? 다윗이 제 발로 왔다고?
우리나라의 영웅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다윗 말이나?”**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적은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이 노래에 나오는 그 다윗이 분명합니다요!”**

**“그자가 대체 무슨 꿑꿑이를 벌이는 게냐
잘 살펴보고 때를 봐서 공격할 준비를 하라!”**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음을 느낀 다윗은
순간 기지를 발휘했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이상한 행동을 하기로 한 거죠.

“헤헤. 이게 뭐지~? 문썩악에 개미들이 있잖아?
아이고 우리 문이 얼마나 가려울까.
내가 긁어줄게~! 헤헤헤.”

뜬금없이 문썩악을 벅벅 긁어주고
수염이 축축해질 만큼 침을 질질 흘리는 다윗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하하하! 천하의 다윗이 미치광이가
되어 버렸구나.
상대할 가치도 없다! 여보라! 저자를
우리 땅에서 쫓아버려라! 하하하.”**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은
적국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드넓은 황무지를 한참을 걸은 끝에
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몸을 숨겼죠.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족들은 잘 지나고 있을지
다윗은 너무도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